문화광장

지금 제주는…

장 수 명
마주보기출판사 대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이란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한 때 제주도 역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우려하던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사라지고 없다. 중국 관광객이 발길을 끊은 후 제주는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한 번쯤 '지금 제주는?'이라는 주제로 도민 스스로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6년 중국이 사드보복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연일 미어터지는 관광객으로 제주도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의 풍경은 어떠한가? 관광객이 중국인들뿐이었던가 싶을 정도이다. 더불어 내국인들 발길은 왜 끊겼을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가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데, 왜 정작 그들의 발길은 제주도가 아닌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는지 제주도민 우리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제주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제주도는 관광도시이다. 무엇보다 장소적 의미가 큰 지역이다. 그렇다면 장소적 관광이 갖는 심미적 작용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제주도 관광은 잠깐 다니러 오는 분들도 있지만 벼르고 별러서 가족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의 비중도 적지 않다. 그들에게 제주도의 장소적 의미와 관광을 마친 심미적 제주도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져있는지 그들의 고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여러 각도의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간곳이 없고, 대신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높아진 임대료에 허덕이다가 결국 내몰려나는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yfication)현상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고, 또한 남아서 견디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과연 제주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제주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살겠다고 온 그들이 못 살겠다고 떠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제주도는 도시이면서 곳곳이 전원지역이고 원시림까지 존재하는 섬이다.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제주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장소의 가치적인 측면을 곳곳에서 발굴하고 연계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주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커다란 관광지이기 때문이다. 자꾸만 따로 떼어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라진 것을 발굴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할 때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것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몇 번이고 다시 오고 싶은 제주도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글을 마친다.

사설

자연재해에 취약한 제주, 미리 대비하자

아직도 '나리의 악몽'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9월 중순 제주섬을 강타한 태풍을 일컫는 겁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물폭탄으로 도시가 한 순간에 마치 폭격을 맞은 듯이 완전히 초토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1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재산피해도 16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자연재해를 겪었는데도 재해예방 관련 대책들은 시원찮아 우려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각 지역 자치단체장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2014년 수립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최근 자연재해 양상과 각종 개발사업 결과를 반영해 최적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천 범람과 홍수 예방을 위한 저류지 일부에서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4~6월 일제점검 결과 총 258곳 중 86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토사퇴적과 잡목 등 경미한 사항과 함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저류지 2곳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하인리히 법칙'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1:29:300 법칙'으로 통합니다. 한 번의 대형사고는 29번의 아찔한 순간을 거치고, 그 전에 300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란 얘깁니다. 때문에 각종 재난의 조짐이나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짓은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됩니다. 특히나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는 자연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도 차량 제한과 도항선 요금 인상

'섬속의 섬' 우도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조치가 2022년 7월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우도면에 영업중인 차량을 제외한 렌터카나 전세버스 자동차는 우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렌터카 차량 반입 제한 이후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 이전 8월 성수기 우도 방문 차량이 970여대를 상회했지만 지난해에는 평균 191대로 감소했고 주요 교차로 교통량도 최소 39.6%에서 최대 82.8%까지 줄었습니다. 그동안 빈발하던 우도 내 교통사고도 2017년 60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줄어드는 등 그동안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우도지역 교통 혼잡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우도 내 대여차량 반입제한 조치 효과가 크고, 해당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재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차량 운행제한 조치 연장에 맞춰 우도에서 성산항까지 도항선을 운항하는 3개 해운사가 이용요금을 15일부터 인상해 이번 조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운사측은 한림항~비양도 등 다른 지역 도항선 요금과 비교해 요금이 낮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차량 운송 감소로 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여차량 운행제한 연장은 우도의 환경적 가치와 미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우도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상당수 주민들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취지를 뒤로하고 우도 주민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해운선사들이 성수기에 요금을 인상한 것은 눈앞의 이익만 바라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열린마당

'일상이 문화' 지질학습을 진행하며

한 원 택
청산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모임회장

성산일출봉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 12주년을 맞이하였다. 유네스코총회에서 등재 권고를 제안했던 당시의 감정은 항상 내 가슴속에 살아 숨 쉬고 있으며 매년 등재일이 다가오면 더 진한 감정을 느끼곤 한다. 아울러 내가 성산일출봉에서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활동을 한지도 10년차 되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 초에 마을주민 해설사들이 일출봉과 마을의 지질을 탐구하고 우리의 아픈 역사로 남아 있는 일제 침략시설인 일출봉 해안갱도진지와 4·3 유적지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 계승코자 뜻을 같이하여 '청산(靑山, 성산의 옛 이름)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서귀포시청에서 공모한 '2019 문화도시 일상이 문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의 걸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지질학습탐구는 이론과 현장학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학습에 임하는 회원들의 열의는 대단하여 모임의 결성에 만족하면서 매년 새로운 사업들을 회원들과 함께 구상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질학습의 목적은 동아리 회원들의 학습만을 위함이 아니며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전파하여 일출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계승함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서귀포시청에 감사드린다.

지질학습을 통하여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의 가치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청사모 회원들은 마을과 일출봉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역량을 모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교육감 "민원 마일리지제 내실 운영" 강조

도, 청렴문화제 효과 자평

○…제주도는 '2019 청렴문화제'의 개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15일 표출.

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주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기관·단체의 참여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

도는 지난 6월 '청렴문화제'에서 기관·단체의 '청렴협약' 체결이후 참여신청이 잇따르자 '청렴으로 하나 되는 제주 실현'에 기여한다는 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 조상윤기자

제주시 과학교실운영 눈길

○…제주시가 이달말부터 하반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

이 사업은 제주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고 (사)과학문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으로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체험·탐구·창작 중심의 과학프로그램(목공공작교실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 예정.

시 관계자는 "지역계층간 과학교육 격차 해소 및 청소년들의 창의력 증진과 창작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민원 처리 단축률 80% 기록

○…제주도교육청이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고 도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효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단축률 상위 부서 포상 제도를 운영한 결과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639건 중 509건이 법정시한보다 빨리 처리 돼 80%의 민원처리 단축률을 기록.

이석문 교육감은 "앞으로도 도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좋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 표성준기자

故 윤춘광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葬 공고

故 윤춘광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葬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게 되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운영 - 기 간 : 2019. 7. 14.(일) ~ 7. 16.(화) / 장 소 :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 **영 결 식 - 일 시 : 2019. 7. 17.(수) 9: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앞**
○ **안 장 식 - 일 시 : 2019. 7. 17.(수) 15:00 / 장 소 : 서귀포 추모공원**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

《장의위원회》
· **장의위원장** : 김태석 의장
· **고 문** :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 강신정, 구성지, 고충홍, 김용하, 김재호, 문대림, 박희수, 송봉규, 양대성, 양우철, 오충남, 오충진, 장정언, 현승탁(이상 전직의장 가나다순), 친지대표 윤영광
· **위 원** : 김희현 부의장, 강충룡 부의장,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강시백 교육위원장, 강철남, 고현수, 강성민, 양영식, 조훈배, 김장영(상임위 부위원장), 오정훈 사무처장, 친지대표 윤상영
· **간 사** : 김윤자 총무담당관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 오정훈 사무처장
· **총무 · 의식부**(김윤자, 오태현) · **경호부**(변덕승) · **연락부**(김애숙)

《유 족》· **미망인** : 강선이 · **자녀** : 윤민우, 윤민주

故 윤춘광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葬
장의위원장 김 태 석

부 고

김근형((주)중앙교통 대표이사, 국제로타리3662지구 2대 총재) 아버지 **김해김공 자연(향년 94세)**께서 서기 2019년 7월 15일 13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7월 17일(수)
▶ 발인일시: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7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 장 지: 해안동 가족묘역

아 들 김근형 며느리 문춘심
근호 양태욱
근봉 오정숙
딸 김근희(근복) 사 위 오훈탁
근열 문영화
소연 Metz David
근실
손 자 김희승 손 부 김소연
희준 외손자 문성건
희진 혁건
용진 오재환
손 녀 김지영 재림
지은 외손녀 옥혜인
지일
해영
슬기

※ 연락처 : 김근형 010-3699-3386
문춘심 010-3600-2181
김근호 010-8992-5144
김근봉 010-5588-785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신천강공 창수(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16일

아 들 강인택 며느리 강윤자
인건 고혜숙
딸 강정희 사 위 고재상
정신 이생기
정란 김성익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승옥(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16일

며느리 이수열
딸 김복자 사 위 양상기

감사의 말씀

신천강씨 제주도종친회 제26·27대 회장 강창수(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16일

신천강씨제주도종친회
장의위원장 **강 왕 수** 외 위원일동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안김공 화옥(향년 8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7월 16일

아 들 김인홍 며느리 고숙자
인중 김민숙
대홍 김선영
딸 김문자 사 위 김용문
미영